

■ 류원무 단편소설자선집 ■

오이꽃/고향의 품/강자, 약자/울감로인의 마음/사생아
은실이의 경우/로할아버지의 장죽/아버지와 아들/고향길
끝나지 않은 이야기/백치시형/변개빛/고요한 늪/아뽕까
참회/현위서기와 그의 부인/때아닌 고백/비단어불
백치와 털보/숨쉬는 거리/빛단련/노을도 피빛
개천에서 난 룡/황혼녘/병어리령감/거울/충성의 마음
셋째머느리/옥빛한 한/김영달의 시름거리/5월의 강서리
밧기 어려운 일/50만원 아가씨/공작대장/호르는 강
인정/그녀와 사나이들/파씨의 비극/어제와 오늘
허도끼파워 안도끼리/해구 앞바다/열도끼와 뽕포수

류원무

단편소설자선집

연변인민출판사

류원무단편소설자선집

류원무 저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최동일

책임교정: 김홍화

기술설계: 정선숙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柳元武短篇小说自选集: 朝鲜文 / 柳元武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8.12

ISBN 978-7-5449-0493-3

I. 柳… II. 柳… III. 短篇小说-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47.7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8) 第212297号

柳元武短篇小说自选集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图们市日升印刷厂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20.625 字数: 53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493-3 (民文)

版次: 2008年12月第1版 2008年12月第1次印刷

印数: 500册 定价: 25.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머리글

림원춘

“작가의 첫째 가는 미덕은 정직과 성실.”

이것은 가난의 뿌리에서 태어나 한생을 가난을 걸머지고 살아왔던 가난뱅이소설가 류원무선생의 도덕경이다. 창작의 길에 들어선 반세기동안 그는 자신의 이 신조를 굳게 지키면서 장편소설, 중편소설, 단편소설, 아동소설, 동화, 수필, 칼럼 등 무려 5백여만자에 달하는 주옥같은 글들을 남겨놓았다.

단편소설집 《류원무단편소설자선집》에서 우리는 사랑과 증오, 기쁨과 슬픔, 찬양과 분노로 자신을 불태웠던 류원무선생의 원형을 볼수 있을뿐만아니라 우리 민족이 걸어온 파란만장한 거창한 흐름을 볼수 있다. 하여 류원무선생의 작품이자 우리 조선족의 력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실했음에도 동글지 못해 어울리지 못하고 정직했음에도 단순해서 떠밀리우고 옳은 말을 했음에도 목소리가 높아 미움을 사고 불어대는 재간을 못 배워서 어디 끼이지 못하고 개울리는 재간을 못 배워 한몫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여 뿔간에 들고…”

류원무선생은 이렇게 말하고있다. 진솔한 고백이며 불같은 향소이다. 이는 류원무선생의 자화상이자 사회와 우리 문단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다. 류원무선생은 자신의 소설집에서 이 고

백과 항소를 생동한 언어와 인물형상으로 재현하고있다.

류원무선생은 다산작가일뿐만아니라 문학의 여러 분야를 포섭한 다재다능한 작가이다. 그는 우리 조선족문단에 지울수 없는 공적을 세웠다.

류원무선생의 소설집 출간은 우리 문단의 기쁨이요 소설계의 자랑이다. 연변인민출판사에 감사를 드린다.

이 머리글이 류원무선생의 “추도문”으로 될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류원무선생의 생전에 소설집을 출간하려고 연변인민출판사에서 다른 출판물을 다 제쳐놓고 출판을 다그칠 때 서둘러 머리글을 써가지고 류원무선생의 병실을 찾았을 때 그는 이미 간 혼미로 의식을 잃었다. 그때는 2008년 12월 7일 오전 11시, 류원무선생이 세상을 하직하기 2시간 반전이다.

나는 일어서며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었다.

“원무형, 나는 가요. 원무형도 빨리 가요!”

차 례



오이꽃	1
고향의 품	19
강자, 약자	33
을감로인의 마음	53
사생아	66
은실이의 경우	89
로할아버지의 장죽	106
아버지와 아들	126
고향길	137
끝나지 않은 이야기	154
백치시형	170
번개빛	185
고요한 늪	206
아뽕싸	222
참회	243
현위서기와 그의 부인	251
때아닌 고백	265
비단이불	284
백치와 털보	303
숨쉬는 거리	316
!	325



빛단련	335
노을도 피빛	344
개천에서 난 룡	363
병어리령감	378
거울	391
충성의 마음	408
셋째며느리	422
옥맺힌 한	434
김영달의 시름거리	446
5월 강서리	455
믿기 어려운 일	473
50만원 아가씨	486
“공작대장”	508
흐르는 강	525
인심	545
그녀와 사나이들	552
괴짜의 비극	567
“애구 엄마!”	587
어제와 오늘	600
허도거리와 안도거리	610
황혼녘	633

오이꽃

1

“아니 글썄, 영순이가 7리평으로 시집을 간대…”

“개는 호박이 넝쿨채로 굴러들었어.”

“아무럼 사람이야 버덕에 나가 살아야지, 이런 산골에 비기랴구?”

영순이가 버덕으로 시집을 간다는 소문은 삽시에 온 동네를 짜그르르 끓였다.

지금은 아무리 편벽한 고장이라도 빠스가 통해서 현성에서 80리 떨어진 이 고방골에서도 한시간 남짓하면 변화한 거리에 닿을수 있지만 영순이가 진교향 7리평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는것은 그래도 일대 소문이요 경사였다. 30여호 인가가 오בות 모여사는 이 산간벽지에도 지금은 뒤집 건너 록음기요, 너덧집 건너 텔레비존이요 하며 현대문명의 혜택을 속속들이 누리고있었지만 고방골사람들은 그래도 시내가까이에서 사는것이 좋다고들 하였다.

그래서 영순이는 동무들의 인사도 미처 받아내지 못하였다.

“영순아, 넌 예술을 즐기더니 소원대로 되었어. 듣자니 7리평은 마을이 커서 구락부도 있다더구나. 구락부에 가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연극도 놀고 얼마나 좋아.”

“영순아, 난 그저 시샘이 나 죽겠다니까. 그렇지만 별수 있

니. 너처럼 얼굴이 곱지 못한걸.”

사실 영순이는 이 고방골에서 미인이었다. 산골사람들이라 미인이라는 말을 쓸 대신에 그저 곱다고 하지만 정말 영순이는 보아도 다시 보게 예쁜 얼굴이었다. 말쑥한 동근 얼굴에 쌍겹진 눈은 어글어글하고 웃기전에 패이기부터 하는 보조개는 매력적인데 균형잡힌 매끈한 몸매 또한 날씬하였다.

영순이는 동무들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듣는것이 귀맛이 당기면서도 어쩐지 쑥스럽기도 하였다. 그래서 마을에 나서기만 하면 아미를 소곳이 숙이고 다니었고 때로는 입귀에 남실거리는 웃음을 억지로 지으며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다.

“애들두, 7리평이 뭐 시넨줄 아니. 여기서나 거기서나 농사 짓기는 매일반이야.”

“좋으면 좋았지 그런 말 하지두 마. 아무래두 버덕이 버덕이지. 철따라 고운 옷 차려입고 어깨 나란히 시내로 들어가보지. 현시대 젊은이다운 맛이 나서 어깨가 으쓱 올라가지 않는가. 그렇지만 이 산골에서는 맵시있는 원피스도 입게 되는줄 알아? 그런 옷 입었다가는 단통 눈밖에 날걸…”

동무들의 말은 사실이었다. 영순이도 입으로는 여기나 7리평이나 다 같다고 하였지만 실상은 가슴속에 꿀물이 스며들기나 하는듯 행복하였다. 그래서 밤이면 이불속에 누워 혼자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려보기도 하였다.

“시집을 잘 정한거야 옳지 뭐. 시내가 가까와 혼때를 벗을 수도 있지, 생활을 문화적으로 할수도 있지. 어찌면 생면부지인 고이가 첫눈에 척 들었을가.”

사실 고방골 라영순이와 7리평 김태만의 혼사는 첫마디에 맺어진 인연이었다. 고방골에 사는 김태만의 칠촌숙의 연줄로 소개가 되어 서로 만나보았는데 저쪽에서는 물론 이쪽에서도 좋다고 정혼이 되었던것이다.

“어찌면 그렇게 첫눈에 들었을가? 사람의 인연이란 참 재미

나는거지 뭘.”

영순이는 아득바득 다가오는 잔치날을 앞두고 코바늘로 이불보를 뜨며 또 그 생각을 하였다. 그날 태만이가 자기네 집으로 선보러 왔을 때 영순이는 방문으로 들어서는 남자의 몸매를 순식간에 포착하였다. 곤색테트론중산복을 입었는데 키는 흰칠하고 후리후리하였다. 우선 체격이 합격이었다. 이마가 좀 받은 것이 흠이라면 흠이겠지만 검실검실한 얼굴에는 남성미가 넘치고 검은 눈에서는 무엇을 잡고 놓지 않는듯한 집요한 빛이 번뜩이고있었다. 인물도 그만하면 나무랄데가 없었다. 게다가 항렬도 둘째라니 세간만 나면 여복 오בות할가.

영순에게는 인물대사가 것처럼 갑작스러웠다. 생소하고 신비하던 이성의 결합이 이처럼 돌연스럽게 그리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숨가쁘게 튀여든것이였다. 불과 한달사이에 현성에 가서 약혼사진을 찍었고 이제 음력설이면 시집을 가게 되는것이였다. 현성에 가서 약혼사진을 찍던 날은 정말로 행복하였다. 거리구경, 공원구경을 하면서 주고받는 말은 이처럼 스스럼이 없었고 이처럼 정이 넘쳤었다. 어쩌면 태만이라도 자기와 취미가 꼭같을가. 그도 예술을 즐기며 문화적인 생활을 즐긴다지? 영순이는 남자가 좀스럽게 노는것이 질색인데 그날 태만이는 넷이 먹어도 다 먹지 못하리만큼 점심을 푸짐히 청하였다. 길보기가 속보기라고 영순이는 행복하였다. 잔치를 앞두고 밤에 낮을 이어가며 문보, 이불보, 책상보, 재봉침보도 뜨고 꽃방석이며 베개머리에 꽃수도 놓아가는 영순이는 곤해도 곤한줄을 모르고 지쳐도 지치는 줄을 몰랐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치는 선물이기도 하려니와 색시희 손재간을 시위하는 레물이기도 하기때문이었다. 그래서 영순이도 정성을 다해 재간을 피우고있었다. 부지런히 놀러가는 코바늘, 수놓이바늘끝에서는 칠색무지개가 아롱거리었고 앞날의 행복이 무르익어갔다. 영순이는 마음이 이처럼 즐겁고 행복하였다. 다만 문학예술을 즐긴다는

영순이에게서 어딘가 유감스러운것은 아직까지 사랑에서 그렇다할 로맨스가 없고 단조로운것 같은 그 느낌이었다. 한달치고 한두권씩은 보아왔을 소설책들에 썩여진 그 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은 얼마나 멋지었던가.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기네 약혼은 어쩌면 싱거운것 같기도 했다. 중간에서 중매를 서주어서 멋이 적었다.

“누구의 소개도 없이 서로 사귀여오다가 총각의 고백을 들어보는 재미란 얼마나 숨가쁠가?”

영순이는 이런 생각을 하며 나오지도 않는 한숨을 쉬어보았다.

하기야 영순이라고 왜 총각들과 사귀여보지 않았겠는가. 아무리 고방골이 치벽하다 해도 영순이 역시 중학교를 졸업한 처녀인것이다. 지금도 강덕수를 생각하면 영순이의 입가에는 웃음이 지어졌다.

김태만이가 왔다 간 이튿날 영순이는 우물터에서 덕수를 만났었다. 그가 깊은 우물에 드레박을 넣고 물을 퍼올리려는데 덕수가 어정어정 다가왔다. 마침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덕수는 정작 영순의 앞에 와 서자 주눅이 드는지 얼굴부터 시뻘겋게 붉히었다. 영순이는 덕수의 속내가 환히 꿰뚫어보이면 서도 그 꼴이 우스워 먼저 물었다.

“왜 그러세요?”

“저... 물이나 올려줄가?”

덕수는 때아니게 담배쌈지를 꺼내들었다가 얼른 되놓고 드러박줄을 잡았다.

“고마와요.”

영순이는 덕수의 손을 뿌리치고 물을 와락와락 퍼올려 동이에 부었다. 영순이는 덕수의 이마에서 서리는 흰 김을 보았다. 어쩌면 덕수가 측은한 생각도 들었지만 영순이는 얼른 물동이를 이고 돌아섰다. 오도가도 못하고 장승처럼 서있던 덕수가 따

라와서 떠들거렸다.

“앞으론 산골도 벼덕보다 못하지 않대. 우리네두 명년봄에 수도를 놓는다던데. 그다음엔 구락부두 짓구.”

그런 중에 닿지 않는 말을 하면서도 숨차할건 뭐람.

영순이는 실없는 생각을 하고있는 자기가 우스워 피씩 웃어 버렸다. 그리고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기자기한 고백을 들어보지 못했단들 뭐래. 소설에 나오는 연애야 재미있으라구 그렇게 쓰는거지 뭘. 촌에서야 언제 그런다구. 영화에 나오는 리쌍쌍이네두 그렇지 뭐야. 뭐 잔치를 하구 연애를 한다던가...”

영순이는 자기네도 잔치를 하고 아기자기하게 행복을 누리 보리라 마음을 먹으며 또 방그레 웃었다.

2

새살림은 깨가 쏟아지었다. 잔치를 한 뒤 세간을 난 새살림은 단란하고 꿀같이 달았다. 영순이가 시집을 오면서 이불장과 재봉침을 해오고 시형네가 텔레비존을 사주어서 갖춤새는 남보다 못지 않게 뜨르르하고 알쭉하였다. 영순이는 무슨 일이나 뜻대로 되어주어서 그저 행복하기만 하였다.

태만이는 일숨씨가 걸싸고 일욕심이 무서운 사람이였다. 발같이철이 되자 한시도 놀세라 푸름해서 일발으로 나가면 점심에 피떡 들려 요기를 하고 날이 저물어서야 돌아왔다. 일을 어찌나 드세게 하는지 저녁술을 놓으면 문턱을 베고 눕기가 무섭게 드렁드렁 코를 골았다.

영순이는 그렇게 일을 다잡아하는 남편이 탐탁하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하였다. 텔레비존에서 좋은 영화가 나온다고 잡아흔 들어도 입을 껌뻌 다시며 피발이 선 눈을 한번 뜨기만 할뿐 저쪽으로 돌아누워버리는 남편이였다. 이부자리를 펴고 무거운 남

편을 옮겨눕히고 그 좋은 텔레비존앞에도 혼자 앉아있는수 밖에 없었다. 하기는 영순이도 남편 못지 않게 들일을 한다, 닭을 친다, 돼지를 먹인다 하며 해종일 바빠 보내는 몸이지만 그래도 텔레비존구경이 좋았다. 하지만 남편이 한쪽에서 네활개를 펴고 코를 드렁드렁 고는데 구경을 혼자 하노라면 어쩐지 가슴 한구석이 허전하기도 하였다. 구경도 구경이지만 고상한 예술의 경지에 이끌려 그때그때의 감수를 오손도손 나누는 그 재미가 얼마나 좋을가.

영순이는 며칠이나 별러오던차 이날 아침에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남편을 눌러눕혔다.

“여보세요, 좀더 누워계세요. 당신은 그저 일밖에 모르는군요. 그 좋은 영화두 보지 않구. 생활이 좀 다채로와야죠 뭐.”

“허허 참, 누가 당신더러 텔레비존을 보지 말라오. 난 그래도 일재미가 제일 좋소, 억척스레 벌어서 살림을 쭉쭉 늘이구싶어 난 막 몸살이 나는것 같소.”

“그래두 문화적인 정신생활두 해야죠 뭐. 나 혼자 텔레비존 구경을 하니 무슨 재미가 있어요. 남들을 봐요, 거리구경두 다니구 영화구경두 다니는데 우린 었디면 코당울데 있는 구락부에 한번 갔나요, 문화실에 한번 나갔나요?”

“이답에 차차 다니지 뭘. 잔치를 하면 어른인데 코빠는 녀석들과 같이 휩쓸리겠소? 그럴 맥이면 차라리 한잠 폭 자구 이튿날 일찌감치 일어나 일이나 한섬 더 하겠소.”

“또 일타령이군요. 어제까지 씨불임이 다 끝났는데 오늘은 하루 폭 쉬세요. 소원이시라면 오늘은 함께 시내구경이나 하구요. 당신은 맥주생각이 안 나요. 난 시원히 국수를 먹었으면 좋겠어요.”

“글쎄, 그것두 좋긴 한데 오늘은 기습이네 발갈이를 거들어 주기로 했구만. 여보, 하루품삿이 5원이면 좀 좋소. 그까짓 대엿집 되는 밭에서 돈이 나면 얼마나 나겠다구. 농사만 지어가지구

야 어느 옛날에 손잡일 갖추겠소. 그러잖아?”

태만이는 이렇게 말하다가 귀여운 안해의 얼굴에 뺨 입맞춰 주고는 결연히 일어났다. 영순이는 마지못해 따라 일어나며 중얼거렸다.

“당신두 참…”

“여보, 손잡이를 갖추면 돈이 막 굴러들어온단 말이요. 농사야 여름 한철이지만 짐실이야 여름이구 겨울이구 있소. 그때 가서 농사는 당신이 짓구 난 짐실이를 해보지? 1년에 수입이 3천 원만 되겠소? 3, 4년후에는 28형뜨락또르를 산다는 말이요. 알만하지?”

영순이는 남편의 계획을 잘 알고있었다. 하긴 그도 그 계획의 작성자였다. 태만의 계획에 의하면 돈을 벌어서 우선 손잡이를 사고 벽돌집을 지은 다음에는 큰 뜨락또르를 사고 그다음에는 돈을 척척 벌어서 은행에 저금을 하는데 만원, 2만원… 태만이는 그것이 평생의 소원이라고 하였다.

영순이가 이부자리를 거두는 사이에 태만이는 벌써 부엌에 내려가 불을 지피었다. 아궁이앞에 웅크리고 앉은 태만이는 지금도 자기의 원경계획을 짜고있는지 불을 때면서도 부지깽이로 무엇인가 그려보고있었다. 봄바람에 거칠어진 남편의 수척해진 얼굴을 내려다보는 영순이는 감자를 썰려다말고 아래간에 가서 닭알 네알을 가져다가 자글자글 타는 기름가마에 깨넣었다. 고소한 냄새가 물씬 풍기고 아궁이앞에 빈 닭알껍데기가 툭툭 떨어졌다. 태만이는 깜짝 놀라 미간을 찌프리며 머리를 들었다. 가느스름히 쪼프리고 영순이를 올려다보는 그 눈에는 아쉬워하는 빛이 력연하였다. 아닌게아니라 그의 입에서는 말이 무겁게 나왔다.

“접때두 말했는데 또 눈 깜짝할 사이에 1원을 던졌구만 쫓쫓…”

“집에서 치는 닭인데 뭘 그래요. 벌어서 먹지두 않겠나요?”

의외에도 영순이가 새초롬해지자 태만이라도 어색하게 흰 이를 드러내보였다. 젊은 내외는 처음으로 아침이 다될 때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아침상에 마주앉았을 때에야 태만이는 닭알볶음을 영순이앞으로 밀어놓으며 빌붙었다.

“여보, 고깝게는 생각지 마오. 난 그저 자금을 빨리 모아 손잡이를 갖추어볼 욕심에서 그런거니까. 다시 보니 당신두 이 봄에 얼굴이 좀 상했구려.”

“누가 뭐 나 먹자구 했는가.”

영순이는 닭알볶음을 남편앞으로 도로 밀어놓으며 쌍겹진 눈을 할기죽하였으나 뒤미처 피씩 웃어버리고말았다. 워낙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데 황차 신희생활에 고만한 일을 속에 넣어둘가. 아침이 끝나자 태만이가 엽초를 굵직하게 말아붙이더니 넌지시 말하였다.

“여보, 닭알 말이 났으니 말이지 오늘은 장에 갔다 오구려. 그사이 또 한 백알 모여졌겠지?”

“예. 요즘 닭이 알을 잘 낳아요. 아마 백여라문알 될거예요. 그런데 여보세요. 난 장에는 정말 못 가겠다니까요. 합작사에 가져다 팝시다, 어때요?”

태만이가 안해를 흘끔 보고 무슨 말인가 할듯하다가 절반도 타지 않은 담배를 재떨이에 던져버리고 일어났다. 그는 묵묵히 봉당에 내려가 신을 신고 밖으로 나가려다 돌아섰다.

“여보, 합작사에는 접때 열서근이나 팔았으니까 수매임무도 넘쳐하지 않았소. 고방골 본새대로 살다가는 이 7리평에서는 입에 죽물도 들어가기 어렵다니까. 한알에 20전씩 하는 장시세에 한근에 1원 20전씩 수매시켰으니 손해를 얼마나 봤는지 알어? 참, 그때는 한알에 20전이 아니라 21전이었어. 수매임무두 그렇지, 한창 여름에는 닭알값이 절반이나 떨어지는데 그때 하면 더 좋았을걸.”

영순이는 어깨를 떨며 남편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았다. 가

느스름히 쪼프리고 궁리를 돌리며 계산을 하고있는 남편의 눈은 참새눈과도 같이 판들거리었다. 영순이는 한숨이 절로 나갔다. 태만이라도 한숨을 쉬었다. 그는 문을 열다가 다시 돌아섰다.

“장에 가기 정 무엇하면 닭알을 가만두오. 래일쫘 내가 새벽장에라두 가지구 갈테니까.”

3

남편이 문밖으로 사라진 다음에도 영순이는 한동안 우두커니 앉아있었다. 고방골에서 스물네해를 자란 영순이는 아직 한번도 장에 가서 무엇을 팔아보지 못하였다.

사실 산골사람들은 장에 다니는 법을 몰랐다. 장에 다니자면 차비도 들거니와 하루품을 떼우고나면 합작사에 가져다 팔기보다 별로 남는것이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속에서 싸구려를 부른다는것도 그리 쉬운 일 아닌것 같아서였다. 그런데 이 7리평에서는 할머니, 아낙네들은 물론 처녀들까지도 닷새가 멀다하게 장으로 드나들었다.

영순이는 앞뜨락에 낫다란 비닐박막온상을 짓고 거기에다 남새모를 붓던 일이 새삼스레 생각났다. 그때 남편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게 이래 뵈두 여기서 5백원이 난다오. 남새를 남보다 한절기만 앞당겨보지, 한근에 얼마요? 오이는 30전, 풋고추는 50전, 당신은 여름에 일을 하지 말구 장마당에만 다니라니.”

영순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데 옷집 정남 어머니가 장에 같이 가자면서 들어섰다.

“새각시, 나하구 장에 가가요. 신랑이 지나가다 우리 집에 들러 닭알이 많다더구만. 나두 처음에는 장에 가 앉으면 아는 사람을 만날가봐 속이 조마조마하던게 지금은 닷새만 건너두 무얼 잃은것 같다니. 난 오늘 쌀을 이고 가겠소.”

영순이는 정남 어머니가 이끄는 바람에 드디어 큰맘 먹고 따라나섰다.

마침 일요일이라 장마당은 여느때없이 끓고있었다. 해빛을 가리우느라고 높직이 옷갓을 씌운 장마당의 콩크리트매대에는 벌써 각가지 농부산품들이 즐비하게 놓여있었다.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같은 육류를 가득 벌려놓은 첫어구를 지나니 이쪽 줄에는 두부, 건두부, 청포, 콩나물, 녹두나물, 고사리, 취, 더덕, 감자, 무우, 달래장사가 차례로 아득히 벌려앉았고 저쪽줄에는 입쌀, 좁쌀, 콩, 팥, 닭알, 닭, 오리, 잎담배 장사가 역시 차례로 앉아있었다. 싸구려를 부르는 소리, 옥신각신 흥정을 하는 소리, 고기를 찌는 소리, 영순이는 처음 한동안은 귀가 먹먹하여 정신이 다 잃어지는것만 같았다. 정남 어머니는 쌀 파는 자리에 앉고 영순이는 주뭇주뭇 닭알 파는데 가서 자리를 잡았다.

자리를 잡고 앉았으나 영순이는 마음이 송구스럽기만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매대앞을 지나가고 지나오고 하였지만 영순이는 감히 얼굴을 쳐들 엄두도 나지 않아 쌍겹진 눈을 살췍이 내리깔고 닭알광주리만 내려다보고있었다. 합작사에 이고 가면 앓은뱅이저울에 떠서 훌쩍 넘기면 될 이 닭알을 오늘 어떻게 팔가 하는 한심한 생각이 들기만 하였다. 떡심 좋게 싸구려를 부르며 손님을 청하는 아낙네들의 비위가 부럽기도 하면서 또 한편 낮 간지러워 그런 비위를 어떻게 쓰는가싶기도 하였다. 영순이가 종잡을수 없는 생각에 잠겨 막연히 앉아있는데 몸집이 뚱뚱한 웬 중년아주머니가 앞에 와서 걸음을 멈추고 닭알을 쥐여보며 물었다.

“이 닭알은 한알에 얼마씩이요?”

참, 닭알 한알에 얼마씩일까? 남편은 아침에 20전씩 한다고 하였지만 오늘 장시세가 얼마인지 누가 알랴? 너무 높이 불렀다가 웃음거리나 사면 그 창피를 어째? 영순이가 이런 생각을 하며 머뭇거리고있는데 그의 오른편에 앉은 아낙네가 그 손님